



“시간 멈춘 4년 사람답게 살게요”

4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김현중

KBS W ‘시간이 멈추는 그때’ 24일 첫 방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걱정과 심려 끼쳐드렸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KBS W 수목극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4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이 자신을 둘러싼 그동안의 여러 사건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중은 2014년부터 전 여자친구와의 폭행, 임신 등 사생활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는 그의 친자로 확인된 아이를 출산했다. 여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현중은 입대했고 법정 공방 과정에서 그의 이미지는 실추됐다.

전역 후인 지난해 4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현중은 지난해 11월 다섯 번째 미니앨범 ‘헤이즈’(HAZE)를 발매하면서 가수 활동을 재개했으며 월드투어에 나섰다. 이어 이번 드라마로 지난 2014년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됐다.

김현중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서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에 앞서 “솔직히 어떤 말로 많은 분께 사죄·용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기와 음악으로 보답한다는 말보다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에 대해 “군대에 있는 2년 동안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면서도 “외부와 단절됐으니 저만의 시간을 쌓는 데 주력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괜찮을 수 있을까 연구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전혀했더니 세상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그 뒤에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또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내가 정말 실패한 걸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다”며 “그러나 귀를 열었다더니 ‘힘내라’는 말이 들렸고 다시 드라마와 음악을 시작해야겠다

고 마음먹었다. 요즘은 ‘오늘 하루만 보자’는 생각으로 즐겁게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아이를 위해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떤 말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를 둘러싼 여러 사건 탓에 시청자가 몰입하기 힘들 것 같다는 지적에는 “사전제작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 중 역할인 문준우로 지난 3개월 동안 스스로 연구하고 열심히 살았다”며 “시청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봐주실지는 모르겠다.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이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 문준우(김현중 분)가 아버지 유산으로 3층 건물주가 된 김선아(안지현)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KBS W의 첫 수목드라마로 사전제작됐다.

김현중은 4년 만의 드라마 복귀 소감에 대해서는 “शल람 반 두려움 반이었다”며 “사전제작이 유리했던 것 같다. 4년만인데도 장비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 있어서 놀랐다. 과거 밤샘 촬영이나 쪽대본 환경이 아니라 연기자들 쉴 시간을 정확히 주는 등 현상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드라마의 매력에 대해서는 “이 드라마가 준우라는 주연을 위한 드라마가 아니라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며 “아름다운 착한 드라마다. 제가 같은 대사를 해도 내면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인공 김선아를 연기하는 안지현은 데뷔 8년 만에 첫 주연을 맡았다.

안지현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부담감이 컸다. 교회, 성당, 절에 가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다”며 “선배들이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해줘서 현장에 긴장하고 가도 즐기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웃었다.

김현중과 안지현 외에도 인교진, 임하룡, 주석태 등이 출연한다.

기억을 잃은 신의 하수인 사자 역할을 맡은 인교진은 “기존과 다른 캐릭터를 맡았다”며 “소이현이 잘할 수 있으니 해보라고 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됐다”고 말했다.

24일 밤 11시 첫 방송. /연합뉴스

조용필 “50주년 기념 메달, 행운이고 큰 영광이죠”

조폐공사, 공연 모습 담아 5050개 판매

‘가왕’ 조용필(68)이 데뷔 50주년 기념 메달 출시와 관련 “제게 행운이고 일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조폐공사가 마련한 ‘50주년 기념 메달’ 공개 행사에 참석해 “세계적인 연예인들, 예술인들 메달도 많이 만든다고 하니, 제 메달을 만드는 것에 대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용필은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놀랐고 의아했던 것 같다”며 “주화라는 것은 역사에서 특별한 사람들, 세종대왕 같은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는 거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의 기념 메달을 만든다고 하니 ‘해도 되는 건가’란 걱정이 있었다”라고도 말했다.

또 50주년을 보낸 데 대해 “50주년이 긴 시간이지만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은 시간에 음악을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폐공사는 이날 조용필에게 메달의 디자인 석고판을 전달한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이번 기념 메달이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맛과 문화를 담은 고품격 메달을 선보여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총 505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조용필 50주년 기념 메달은



‘가왕’(歌王) 조용필이 ‘데뷔 50주년 기념메달’을 공개하고 있다.

기념 메달은 고급형 I (금·275만원), 고급형 II (금·143만원), 컬렉션형(은·16만5천원) 등 3종으로 디자인은 동일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과 풍산화동양행,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전국 지점, 골든투 롯데백화점 전국 매장 등에서 예약 접수가 진행된다.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문화진흥과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칸 수상 불발 ‘버닝’, 최우수 작품상으로 한 풀었다

대중상영화제 감독상에 ‘1987’ 장준환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이 지난 5월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서 못다 한 수상의 꿈을 대중상영화제에서 이뤘다.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올해 제55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에서 ‘버닝’은 최우수작품상 수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품상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파인하우스필름 이준동 대표는 “올해는 상업영화와 독립영화에서 모두 엄청난 영화가 많았는데 버닝이 상을 받게 돼서 훨씬 기분이 좋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감독상은 ‘1987’의 장준환 감독이 받았고, 남우주연상은 ‘공작’의 황정민·이성민이 공동 수상했다. 여우주연상은 ‘아이 캔 스피크’의 나문희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다음은 수상 명단

- ▲ 최우수작품상 ‘버닝’ ▲ 감독상 장준환(‘1987’) ▲ 남우주연상 황정민·이성민(‘공작’) ▲ 여우주연상 나문희(‘아이 캔 스피크’) ▲ 남우조연상 고(故) 김주혁(‘독전’) ▲ 여우조연상 진서연(‘독전’) ▲ 신인남우상 이가섭(‘폭력의 씨앗’) ▲ 신인여우상 김다미(‘마녀’) ▲ 신인감독상 전고은(‘소공녀’) ▲ 의상상 조상경·손나리(‘인랑’) ▲ 미술상 박일현(‘공작’) ▲ 시나리오상 전고은(‘소공녀’) ▲ 음악상 사가모토 류이치(‘남한산성’) ▲ 편집상 김형주·양동엽(‘곤지암’) ▲ 조명상 조규영(‘남한산성’) ▲ 기획상 이우정(‘1987’) ▲ 촬영상 김지용(‘남한산성’) ▲ 기술상 진종현(‘신과함께-인고연’) ▲ 우리은행스타상 설현 ▲ 특별상 고(故) 김주혁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대장금이 보고있다 스페셜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경성판타지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2018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개막식 50 무엇이트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오늘의 탐정(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류 공감	00 속보이든TV 인사이드(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4]	00 시사간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kbc-jtv 공동제작 히스토리 쇼, 천년의 이야기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KBS순천 특별음악회 여순사건 70년-해원 55 UHD 송년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와외과 : 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동	10 회사 가기 싫어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2018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특별토론 50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5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갈치 무조림과 김무침>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페루 문명기행 3부>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적도 위에 푸르른, 마이크로네시아 3부>	12:10 EBS 초대석
07:00 융감한 소방차 레이	13:00 독도채널e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우리 가족 거리 줄이기-부모성적표(재)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09:30 원더볼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융감한 소방차 레이
10:30 한국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子** 36년생 확실히 다잡아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48년생 목직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60년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72년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13, 65
- 丑** 37년생 난제를 잘 수습해야만 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49년생 관련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61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73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85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0, 22
- 寅** 38년생 늦은 시간애야 겨우 가닥이 잡혀갔다. 50년생 체계에 따르는 것이 영속성을 담보한다. 62년생 돌발적인 변수까지 감안하라. 74년생 결함이 보이지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86년생 불편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행운의 숫자 : 92, 57
- 卯** 39년생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51년생 병행하여 나아가도 무리가 없다. 63년생 근거부터 확보해두자. 75년생 상당히 높은 궤도로 오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한다. 87년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4, 53
- 辰** 40년생 분주할 것이다. 52년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64년생 반갑기는 하겠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76년생 결가지는 차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88년생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86, 30
- 巳** 41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진다. 53년생 버락 치게 서둘러야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77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89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행운의 숫자 : 34, 78

- 午** 42년생 목직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54년생 서둘러서 좋을 일은 없으나. 66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78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90년생 감정을 배제해야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5, 18
- 未** 43년생 중요한 일을 의중대로 이룰 수도 있다. 55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소비로 이어진다. 67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79년생 계획된 바를 진행하기에 썩 좋은 날이다. 91년생 무리하다면 역효과 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5, 63
- 申** 44년생 완전히 반전 될 수도 있는 기운이다. 56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순조롭다. 68년생 느낌이 여의치 않다면 중도에 내려놓아도 된다. 80년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92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하리라. 행운의 숫자 : 02, 71
- 酉** 45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57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라. 69년생 거의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81년생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93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행운의 숫자 : 62, 81
- 戌** 34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46년생 주변의 말은 차치하고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58년생 감구해 왔던 바가 실현 될 것이다. 70년생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맞다. 82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72, 64
- 亥** 35년생 불안했었던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겠다. 47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는데. 59년생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1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94,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